

□ 기획연재 □

한국정보과학회, 어제를 돌아보며 내일로(6)

한국정보과학회의 과거와 미래

한국과학기술원 김길창*

1. 과 거

1971년에 당시 한국과학원에 부임하여 1972년에 IBM Watson 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가서 다음해 1973년 초에 학생모집 준비를 위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따라서 동년 3월에 설립된 한국정보과학회 설립과정에 참여한 것은 대외적인 활동의 첫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발기인단의 일원이라고 생각되나 불행하게도 공식적인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초창기부터 이사, 편집위원장 등의 역할을 통해서 학회의 일을 하다가 3대 부회장을 지내고 그 후에 약간의 공백기간을 두었다가 6대 조경환 회장때에 학회창립 10주년 국제학술대회 조직위원장을 맡게 되어 다시 학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게 되었다.

어떠한 이유인지는 몰라도 학회에서 재정분야에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재정담당 부회장을 지냈으며 학회창립 10주년 학술대회를 조직함에 있어서도 재정문제가 관건이 되었다. 물론 외국연사를 선정하는 문제도 큰 일이었는데 당시 미국에 계시던 김광희 박사의 도움을 얻어서 저물급의 인사를 모실 수 있게 되었다. 재정면에서는 IBM과 삼성전자 등 기업체의 협조를 얻어서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남은 돈은 학회에 기금으로 적립하였다.

1985년에 회장으로 취임했을 당시에는 전임 임원들의 노력으로 학회는 이미 상당한 기반을 갖춘 상태였다. 그러나 아직 구이동에서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학회활동의 목표로서 내집 마련을 위한 기금조성과 IFIPS 가

입으로 시작되어 창립 10주년 국제학술대회로 결실된 학술활동의 국제화 기반조성을 목표로 추진하였다. 취임 초년도에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처음으로 학회수입이 1억원을 넘는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새삼 여러분께 다시 감사를 드릴 뿐이다. 그 결과 마포에 오피스텔 두 개를 사서 학회를 현재 위치로 독자적인 사무실을 마련하는 기쁨이 되었다.

물론 현재와 같은 규모의 학회를 운영하는 데는 재정과 국제활동 이외에도 여러가지 중요한 일들이 허다하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나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이 두 부분에 대해서 학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소견을 펴려고 한다.

2. 미 래

우선 재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자. 학회의 수입을 보면, 물론 현재에는 그 구조가 약간 변한 것으로 생각되나 회비, 보조금, 광고비, 연구용역 및 각종 공식행사 개최에 따르는 오버헤드가 그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된다. 회장 취임 당시만 해도 보조금과 광고비가 수입의 주류를 이루었는데 이러한 유형의 수입에는 연줄 동원과 약간의 억지가 항상 수반되어 회장을 하고 나면 항상 여러 사람에게 빚을 졌다는 기분을 금할 수 없었다. 현재는 수입의 구조적인 개선으로 인하여 회장이 일일이 신경을 쓰지 않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제시하고 싶은 원칙은 수혜자 부담이다.

광고비나 보조금을 기업에서 기꺼이 내게 하려면 학회지나 잡지의 질과 독자의 수가 상당

*종신회원, 한국정보과학회 제7대 회장

하여 회사에서 그곳에 광고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도록 학회에서는 간행물의 질과 양을 개선하는데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간행물의 경우에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어떤 분야에 대한 지침서가 될 수 있는 series의 발간이다. 그 분야가 첨단 기술인 경우에는 출판사와 공동으로 상업적인 기반에서도 추진이 가능하고 수요가 많지 않은 분야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충실하면 출판을 지원하는 독지가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회원, 기업체 또는 사회 전반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수익사업의 개발이다. 연구용역, 대회의 개최 등으로 많은 진전이 있다고 생각되나 학회와 회원의 권위를 바탕으로 하는 국책사업의 참여, 표준설정, 정보화 계획수립 등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의 사회분위기를 보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학회와 같이 전문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단체를 활용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생각한다.

학회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회원이다. 물론 회원들의 음적·양적 노력으로 학회가 재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은 사실이나 아직도 회비가 학회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고 생각된다. 회원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출판물의 간행 비용만이라도 회비로 충당할 수 있는 처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선진형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 학회에서 해야 되는 일도 많으나 결국 회원 자신들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현재 국내 타분야의 비용을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실감하고 있다. 그렇다면 회비의 현실화 문제도 거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오래전에 종신회원이 된 사람 중에 하나로써 지금도 학회에서 보내주는 여러 가지 책자를 받을 때마다 학회에 민폐를 끼치고 있거나 않은가 하는 송

그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있다.

다음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학회의 국제화인데 그 중에서도 논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논문의 목적은 회원의 연구결과 의 게재를 통해서 그 결과를 분야 전문가에게 전달하고 그 분야에 대한 반전과 지식의 축적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 결과 논문을 발표한 사람은 전문가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발표자가 소속한 기관으로부터 학술활동 결과에 대한 크레디트를 얻게 된다. 논문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그 내용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국제 공용어인 영어의 사용이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예전과는 달리 국내 연구 수준이 질적으로 향상되어 많은 회원들이 외국잡지에 많은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유사한 내용의 논문을 국어로 정보학회지에 발표하면 이 논문은 언어문제로 인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또한 이미 여러 대학에서는 학위취득이나 연구 업적의 평가를 위해서 연구결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잡지에 게재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할 때에 학회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여 정보학회지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도록 하여 회원들이 안심하고 발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서 학회지의 권위향상과 국내 연구수준의 위상을 높여줄 수 있는가를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 좋은 연구 결과가 언어때문에 사장되거나 회원들이 학술지의 게재를 기피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미 오래전에 현역을 떠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두서없는 말을 많이 했는데 이미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학회에서 여러 가지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금명간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이 제시되리라고 생각되지만 전임 회장의 학회발전에 대한 노파심으로 생각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